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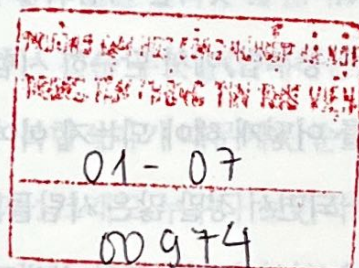
고영성 · 신영준 지음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

고영성 · 신영준 지음



2년 동안 페이스북 <인생공부> 페이지에 천 개도 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게시물은 몇 달 있다가 또 올려도 상당한 반응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기 게시물의 내용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심에 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세 개의 게시물 제목을 소개하면 3위는 “엑셀 함수, 206개나 모아놓은 것!”이었고, 2위는 “하루 10분 투자해 허리 통증 없애는 꿀팁”이라는 게시물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압도적인 반응을 보인 “일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궁금해 했을까? 우리는 전작 《완벽한 공부법》에서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 아닌 삶에 근간이 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완벽한 공부법》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온/오프라인에서 나눌 수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도 많았지만 취업 준비생, 직장인, 스타트업 종사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한 ‘공부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일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일’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부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사교육까지 받아가며 불철주야 노력했다. 그렇게 보통 15년 넘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후 취업하거나 혹은

창업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직장에 들어간 신입 사원의 절반 이상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창업자들 대부분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공부했는지 의문이 든다.

○ 학습능력은 일을 잘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얹혀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일을 하면서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일을 잘하는 법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그것을 교정하면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의 속성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잘하면 일을 잘한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을 잘한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기억나는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시물 3위는 바로 “엑셀”에 관한 것이었다. 엑셀을 잘 사용하면 일의 효율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싶어 한다.

○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부분 30년도 넘게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반대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것보다 즐거운 삶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을 어떻게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과연 일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또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8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편 〈운〉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공 스토리에서 진정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운과 실력과의 관계, 일의 예측에 대한 고민, 운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본다.

2편 〈사고〉에서는 우리가 일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5가지 생각 방식인 반성적 사고,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재무적 사고 등에 대해 살펴본다.

3편 〈선택〉에서는 프로세스로 인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효용을 갖는지를 이해하고 일을 잘하기 위한 5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본다.

4편 〈혁신〉에서는 혁신이 어려운 이유와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핵심 개념인 다양성과 연결, 질보다는 양, 굴절적응, 결핍과 한계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5편 〈전략〉에서는 최신 이론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 자원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본다.

6편 〈조직〉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면서도 즐거운 일터가 되기 위한 조직문화의 핵심 요소인 총동기 이론, 자율성과 사회적 동기, 팀워크, 직원우선주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7편 〈미래〉에서는 기하급수적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할 고용의 미래와 경제경영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8편 〈성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세 부류의 인재상인 호모 아카데미쿠스, 슈퍼 네트워크, 이성적 몽상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에 함께 일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할 것 같다. 모두가 ‘일취월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12월

고영성 · 신영준

1장 운(運)

무엇이 성공을 이끄는가? ▶ 멋진 성공 스토리 14 운이 지배하는 세계 20
새로운 성공 스토리 25

예측과 블랙 스완 ▶ 예측들 30 예측 불가능성 34 더 나은 예측을 하려면 38 블랙 스완 43
운과 동행하는 3가지 태도 ▶ 불확실성 수용력을 갖춰라 48 운의 영향력을 측정하라 52
최악을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자 56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내가 겪은 두 번의 운 62

고작가의 심화: 복잡계로 비즈니스 이해하기 71

2장 사고(思考)

반성적 사고 ▶ 히틀러와 니콜레옹 82 승자효과 83 반성적 사고 87 기록: DR과 AAR 91
통계적 사고 ▶ 월 스미스와 나이팅게일 97 우리만의 통계를 만들자 100 통계의 함정들 102
맥락적 사고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109 양손잡이 경영: 지식의 탐색과 심화 114
시스템적 사고 ▶ 전체를 보는 안목 119 채찍효과 121 애플의 공급망 관리(SCM) 123
재무적 사고 ▶ 돈! 돈을 벌어야 한다 126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자 131

고작가의 심화: 고객 중심적 사고 135

3장 선택(選擇)

- 인식론적 겸손을 갖쳤는가 ▶ 후회스러운 선택들 148 인지적 한계 150 게리 클라인 vs. 대니얼 카너먼 155 선택 프로세스의 힘 157
- 선택 안은 정말 충분한가 ▶ 케네디 정권의 실패와 성공 161 기회비용과 벤치마킹 164
- 검증의 과정은 거쳤는가 ▶ 넷플렉스의 실패 168 출석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70 체크리스트 172 줌 아웃, 줌 인(Zoom Out, Zoom In) 175
- 경쟁자는 생각했는가 ▶ 체스 챔피언과 빌 게이츠 178 경쟁행동의 유익 181 경쟁자를 활용하는 방법 183
- 집단 의사결정 ▶ 집단 사고 186 집단 의사결정은 왜 실패하는가 189 반대자를 세워라 193
- 고작가의 심화: 조직 내 침묵 현상, 리더가 조직을 침묵시킨다 196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대학원에 가야 하나요? 200
- 고작가의 심화: 과학적인 진로 선택 5단계 208

4장 혁신(革新)

- 혁신은 왜 어려운가? ▶ 제멜바이스와 벨 220 혁신의 공간: 산호초, 도시 그리고 웹 224
- 다양성과 연결 ▶ 다양하고 연결될 때! 227 공간 230 이동 233 인간 235
- 질보다 양 ▶ 자라의 혁신 240 '스나이퍼'보다 '탐보'가 242 많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244 실패를 보상하라 246
- 굴절적응 ▶ 금속 광산의 화려한 변신 249 굴절적응 250 전문가의 눈을 버려라 252
- 결핍과 한계상황 ▶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가 연주 될 때 255 데드라인 258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소소한 혁신 264
- 고작가의 심화: 오픈 이노베이션 269

5장 전략(戰略)

- 전략은 실행 능력이다 ▶ 뇌와 움직임 278 전략은 실행 능력이다 280 전략의 놀라운 힘 282
- 저스트 두 잇 ▶ 라이트 형제와 랭글리 285 린 스타트업과 애자일 290 실험 문화 294 총알 먼저 쏘고 대포 쏘기 296
- 히든 에셋 ▶ 맥주와 디지털 카메라 299 아마존과 어벤저스 302
- 리마커블 ▶ 퍼플 카우 306 소셜 화폐 309 가시성 314 감성 319 실용성 322 스토리 326
- 굿 컴퍼니 ▶ 홀푸드마켓의 생존 비결 333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336 진정성 있는 행동의 힘 339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사표를 쓰는 타이밍 342

6장 조직(組織)

- 몰입과 6가지 동기 ▶ 조직 문화의 힘 350 직원 몰입의 혜택 353 6가지 동기 355
- 자율성과 통제권 ▶ 규칙을 어기다 362 관리자가 없는 조직 366 스트레스와 통제권 370
- 인사가 만사 ▶ 채용의 어려움 375 면접 착각 377 더 나은 채용을 위하여 380
- 팀워크 ▶ 팀의 위력 385 훌륭한 팀의 특징 1: 발언의 권리 389 훌륭한 팀의 특징 2: 동료애 392
- 직원 우선주의 ▶ 고객은 2순위 396 이상적인 노동자와 근무시간 399 직원을 가족처럼 402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월요병을 극복하다 409
- 고작가의 심화: 경력단절 여성을 구하라 415

7장 미래(未來)

- 기하급수의 시대 ▶ 20년의 변화 422 기하급수적인 변화 424 기하급수의 6D 427
- 인공지능과 고용의 미래 ▶ 알파고 전 435 GPU, 빅 데이터, 딥 러닝 439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 441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444
알파고 후 447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리더의 조건 452
- 고작가의 심화: 중년의 뇌, 가장 뛰어나다 459

8장 성장(成長)

- 호모 아카데미쿠스 ▶ 학습하는 인간 466 지식의 중요성 472 경험의 중요성 475
과학적인 학습 전략 479 독서 습관을 만드는 7가지 방법 483
글을 잘 쓰는 9가지 방법 486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직장인의 공부법 491
- 슈퍼 네트워크 ▶ 제7의 감각 498 스타 성과자의 비밀 501 약한 유대 vs. 강한 유대 503
이기적 이타주의자 506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입사 후 숨이 막히는 신입사원에게 513
- 고작가의 심화: 실력이 스펙을 이긴다 524
- 이성적 몽상가 ▶ 구글 X 그리고 몽상가들 529 꿈에 사로잡힌 자의 3가지 혜택 535
이성적 몽상가 539
- 신박사의 경영에세이: 성장방정식 547